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차재호 · 정지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인의 성격과 의식(차, 1980)에서 수집한 1979년 질문지 자료 중에서 집합주의-개인주의와 관련한 32개 문항들의 자료를 분석했다. 응답자는 (1) 연령(20대, 50세 이상), (2) 성별, 및 (3) 주거지역/교육수준의 3개 변인을 교차시킨 12개(2×2×3) 대비집단 각각에서 n=50명씩을 임의로 뽑은 기혼 성인 총 600명이었다. 요인분석한 결과 집합주의-개인주의의 관련 문항들은 20대 집단에서는 (1) 집합체 수용, (2) 내집단(內集團) 편애, 및 (3) 가족중심주의의 3개 요인으로 요약되었고, 50대 집단에서는 (1) 부모-자식 관계 의존과 (2) 가족 중심주의의 2개 요인으로 요약되었다. 또한 1980년경 한국인들은 집합체 수용이라는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집합주의적인 경향을 띠었지만 내집단 편애나 부모-자식간 의존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경향은 도시거주 고학력층, 즉 현대화 압력을 많이 받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요인은 개인차가 존재하는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중요한 가치도 규범으로(개인차가 최소화되는) 작용하면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1979년에 수집된 자료(차재호, 1980)를 재분석한 결과를 다룬다. 원래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성격과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한국인들에서 나타나는 집합주의(collectivism)나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연구하고자 설계된 것은 아니었다. 원래의 연구는 문헌 연구와 질문지 연구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후자에서 사용된 설문내용 중에는 집합주의와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그 문항들에 관한 자료만을 따로 뽑아내어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결과의 개략은 이미 1990년에 정신문화 연구원에서 개최되었던 개인주의-집합주의 국제 워크샵에 발표된 바 있다(Cha, 1990).

여기에서는 먼저 (1) 이들 문항의 요인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다음에 (2) 각 요인을 대표하는 문항에서의 응답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현대 한국인들이 집합주의적 경향을 띠는지 혹은 개인주의적 경향을 띠는지를 따져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3) 요인 점수를 변량분석하

여 성별 및 주거지역/교육수준과 같은 변인에 따라 집합주의 경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방 법

설문지 원래의 연구(차, 1980)에는 총 177개의 문항이 포함되어있는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이 177개 문항들은 현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되는 다양한 신념들을 포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각 문항들에는 2개의 선지가 있었고, 이 두 선지는 서로 반대되는 신념을 나타내는 것들로, 하나는 구식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식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었다(예: 젊은이는 (가) 자신보다 집안을 위해 성공해야 대 (나) 집안보다 우선 자신을 위해 성공해야). 응답자들은 이 두가지 선택지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맞는 것을 하나 고르도록 되어 있었다.

177개 문항들에는 다양한 신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집합주의를 살펴보기 위

<표 1> 각 조건별 응답자 수

	20대			50대 이상			계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남	50	50	50	50	50	50	300
여	50	50	50	50	50	50	3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600

해서는 집합주의 혹은 개인주의를 나타내는 문항들만을 따로 선정해야 했다. 문항의 내용을 보고 집합주의 혹은 개인주의 신념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찾은 바 총 32개의 문항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문항들에서는 각 문항의 두 선지 중 한 선지가 집합주의를 나타내면 다른 선지는 개인주의를 나타내게 되어 있었다. 본 보고에서는 이 32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응답자 이 자료의 응답자들은 기혼 성인 총 600명으로 (1) 연령(20대, 50대 이상), (2) 성별(남, 여), 그리고 (3) 거주지역/교육수준(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을 교차시켜 얻은 12개(2×2×3) 대비집단들(contrasting groups) 각각에서 임의로 표집한 50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1 참조).

대비집단을 연령, 거주지역/교육수준, 그리고 성별로 나눈 것은 이런 개인적 변인이 사람의 성격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것이다. 연령층간의 차이는 세대차를 보여 앞으로의 성격 내지 의식의 변천방향을 지시해 줄 것이다. 학력과 지역을 결합하여 농촌/국졸, 서울/중졸, 그리고 서울/대학으로 나눈 것은 도시 거주와 학력이 함께 현대화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3개 구분들 중에서 뒷것일수록 현대화 정도가 큰 것으로 상정했다.

조사시기 자료는 1979년 2월 20일에 시작되어 3월 6일까지 약 2주 기간에 수집된 것이다.

조사방법 응답자들의 자료는 직접 면접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면접은 대학 재학생인 10명의 여학생들이 주로 담당하였다. 어느 경우나 질문지는 면접에 의해서 실시하고 부실한 응답을 예방하기 위해 면접자는 질문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배석하도록 했다.

표집방법 서울 사람들은 반(班)을 단위로 표집되었다. 먼저 몇개의 동(洞)을 임의 추출하고 그 동에 있는 반

을 임의적으로 추출하였다. 임의표집을 할 경우에 생기는 편파를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반이 표집되면 다음 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서 해당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두 면접하였다. 즉 그 한정된 지역에서 적격자가 없을 때에만 새로운 지역으로 갔다. 농촌에¹⁾ 거주하는 사람들은 면소재지보다 작은 단위인 부락을 단위로 표집되었는데, 이때에도 서울지역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부락에서 적격자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때에만 새로운 지역을 정해 조사하였다. 대상자는 부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부부가 모두 해당 기준에 맞으면 부부가 모두 포함되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느 한쪽 배우자만 포함되었다.

결과 및 논의

앞서 언급한대로 집합주의-개인주의 차원과 관련이 있는 32개의 문항들을 선정하여 이 32개 문항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1)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2) 요인을 대표하는 문항에서의 반응 분석 결과, 그리고 (3) 요인점수에 대한 변량분석결과 순으로 제시할 것이다.

집합주의를 구성하는 심리적 차원

32개 문항이 쥘 집합주의를 구성하는 심리적 차원을 찾기 위해 20대 집단과 50대 집단 각각의 응답을 토대로 요인분석을 하였는데, 이때 Eigen value는 2.0 이

1) 동촌 표집은 京畿道 華城郡 東炭面 석우, 반송, 청계, 반교, 산척, 장지, 그리고 영치리, 坡州郡 汶山邑 방동리, 全羅北道 扶安郡 扶安面 동정리, 高昌郡 공음면 칠암리, 고수면 예지리, 井邑郡 北面 오정리, 영원면 후지리, 정주면 농송리에서에서 구하였다.

상으로 지정해 주었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요인법(principal component method)을 사용했으며, 축회전은 요인들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직교 회전(varimax)법을 사용했다. 요인 분석 결과 20대 집단에서는 3개의 직교 요인(orthogonal factor)이 그리고 50대 집단에서는 2개의 직교 요인이 나왔다. 20대 집단의 3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21.6%를 설명했고, 50대 집단의 2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17.4%를 설명했는데 대체로 설명 변량이 낮은 편이다. 다음에서 각 연령집단 별로 추출된 직교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0대 집단

20대 집단에서 발견된 3개의 직교 요인 중 요인 I은 전체 변량의 8.4%를 설명했다. 이 요인 I에 해당하는 문항들 가운데 요인부하(factor loading)의 절대값이 .30 이상인 것들이 표 2에 나와 있다.

요인 I의 대표적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일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자기 개인의 감정이나 자기 일신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것을 희생시켜가면서 이미 맺어진 가족이나 선배와의 관계에 대한 의무를 고려해야 하는가의 대립으로 특징지어져 있고 전형적인 집합주의 차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20대 집단의 요인 I은 “관계에 따른 의무의 수용(acceptance of relational obligation)” 혹은 그저 “집합체 수용(acceptance of collectivity)”이라고 명명하는 것

(Cha, 1990)이 적당할 것이다.

20대 집단의 두번째 요인(요인 II)은 전체 변량의 6.9%를 설명했다. 요인 II에 높은 부하를 보이는 12개 문항들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부하가 높은 문항들 가운데 4개 문항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분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정실에 치우친 대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계없는 사람과 같이 동등하게 대우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내용이었다(정실주의). 또한 4개 문항은 부모와 자식을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볼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공생관계). 2개의 문항은 자식 두는 것의 가치에 관한 것, 즉 자식을 낳는 이유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로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한 것인지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전통적 자녀가치). 이 요인 II는 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이 내집단(內集團) 성원들에 대한 편애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명칭을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 요인이라고 명명했다. 내집단에 대한 관심은 집합주의의 정의의 중요한 일부이다(Triandis, 1983).

20대 집단의 세번째 요인(요인 III)은 전체 변량의 6.4%를 설명했다. 요인 III에 묶인 문항들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III에서 요인 부하가 가장 높은 문항 3개는 국가

<표 2> 20대 집단의 요인 I에 해당하는 문항들(선지는 집합주의 표현을 앞으로 놓았음)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
125	젊은이는(자신보다 집안을 빛내기 위해/집안보다는 자신을 위해)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3
124	가정이란(부부보다 자식을 위해/주로 부부만을 위해) 있는 것	.59
128	사람은 가족이나 가문 위해(자신을 희생시킬 줄 알아야/자신을 희생시키지 말고 개인적인 발전을 생각해야)	.53
37	사귀는 사람이 알고보니 선배의 애인이라면(선배에게 양보/끝까지 내사람으로 만들)	-.49
123	젊은 사람이 결혼할 때(아무리 좋아도 어른들이 허락 않으면 말아야/당사자들만 좋으면 함)	.42
88	부부는(일단 가정 가지면 애정 식어도 부부 관계 계속해야/애정 식으면 부부관계 계속할 필요 없음)	.39
151	요즈음 같은 세상에는(충효사상만큼 중요한 것 없음/충효사상은 중요치 않음)	.35
7	분수를 지키다는 것은(사회 질서 위해 각자가 맡은 일에만 충실하고 지나친 행동 삼가는 것/타고난 재능 충분히 발휘토록 끊임없이 자기를 닦아나가는 것)	.30

<표 3> 20대 집단의 요인 II에 해당하는 문항들(선지는 집합주의 표현을 앞으로 놓았음)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
141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다른 후보보다 능력은 뒤져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람/잘 알고 지내지는 않아도 다른 후보보다 유능한 사람) 뽑아야	.51
58	아이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될 수 있는대로 오래 부모 슬하에 두고 가르쳐 세상에 나갈 유리한 고지 점령하도록 도와야/되도록 일찍 독립하도록 도와야)	.43
2	관리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은(가족에게는 좀 유리하게 대우하지만 다른 모든 이에게는 똑같이 하는 것/가족, 친척, 또는 친구에게도 남과 같이 대우하는 것)	.40
32	부부는 아이 낳을 때(가문을 잇기 위해 낳는 것/가문을 잇기 위한 것은 아님)	-.40
31	자식 두는 이유는(집안에 대 이을 사람 위해/자식 기르는 재미 보고 화목한 가정생활 맛보기 위해)	-.39
56	사람이란(어려서는 부모에게 나이 먹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살아야/부모 떠나 자립하고 자식에게도 의지하지 말아야)	-.39
135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그가 의리가 있는/필요하면 의리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냐는 것	.39
122	자식은 돈 벌면(부모에게 돈을 드려야/자기가 혼자 쓰면 됨)	.37
136	친한 친구나 동기간에(너무 권리 주장하면 의 상하므로 때로 권리 양보해야/의 상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지켜야)	-.36
3	점잖게 행동하려면(도리에 어긋난 짓하는 사람 꾸짖거나 피해자의 편 들줄 알아야/눈에 거슬리는 행동 보아도 개인의 일이므로 간섭하지 말아야)	.33
142	직장에서 다른 사람 취직시키거나 승진시킬 수 있는 위치라면 다른 사람보다 선배를(잘 봐주는 것은 당연함/더 잘 봐주어서는 안됨)	-.32
62	자식은(독립된 인격의 소유자로 대우해야/부모와 완전히 독립된 인간으로 다루어서는 안됨)	.31

<표 4> 20대 집단의 요인 III에 해당하는 문항들(선지는 집합주의 표현을 앞으로 놓았음)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
22	사람이 가장 떠받들어야 할 것은(자기 나라/자기 자신과 가족)	.69
20	국가에 대한 충성은(가족에 대한 충성보다 앞서는 것/가족에 할 일 다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	-.68
21	충과 효 중(충이 효보다 중함/효가 충보다 중함)	.63
149	인생을 살면서(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다	.32

와 가족 중에서 혹은 충과 효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관한 문항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요인은 가족 중심주의(family-centeredness)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대 집단의 요인 III은 얼핏 보기에는 집합주의-개인주의 차원을 나타내는 요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집합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내집단

중심적이고, 가족과 국가는 모두 대표적인 내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와 가족 중 국가 쪽이 더 집합주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한 국민도 가족은 자신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다. 50대 집단에도 이와 거의 같은 요인(50대 요인 II)이 나타나는 데 거기에는 가족 선호가 개인주의와 유사하다는 증거

가 제시된다. (한국인의 내집단이 국가인지 가족인지를 분석한 결과부분 참조.)

50대 집단

50대 집단의 자료에서는 2개의 직교 요인이 나타났다. 이 2개 요인들 중 요인 I은 전체 변량의 9.8%를 설명했다. 요인 I에 묶인 문항들을 보면 표 5와 같다.

50대 집단의 요인 I에 묶인 8개 문항들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뉜다. 요인 부하가 가장 높은 4개 문항들이 부모와 자식을 서로 의존적인 관계로 보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존재로 보느냐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4개 문항들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대할 것인지 아니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요인 I은 요인 부하가 높은 4개 문항의 내용에 근거해서 부모-자식 관계 의존(dependent parent-child relationship) 요인이라고 명명했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여기에 포함된 총 8개 문항들 중 6개 문항들이 20대 집단의 제 II요인인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 요인의 문항들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2개(#53, #144) 문항들은 친밀한 사람들과의 의존을 나타내는 문항들이었다.

50대 집단의 요인 II는 전체 변량의 7.6%를 설명했

다. 요인 II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내용은 표 6에 나와 있다.

총 11개 문항들 가운데 4개 문항들이 국가나 가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우선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2개 문항들이 자식 두는 것의 가치(가계 계승/부모로서의 즐거움)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나머지 5개 문항들이 관계에 따른 의무의 수용(20대 집단의 요인 I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50대 집단의 요인 II는 그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의 내용이 20대의 가족주의 요인(요인 III)과 유사하여 가족주의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요인은 단순한 가족중심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의 비교에서 가족을 우선하는(반대로 국가를 우선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 요인도 얼핏 보기에는 개인주의-집합주의 차원을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20대 집단의 결과에서 말한 이유로 해서 이 차원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선지의 내용과 요인 부하의 방향을 고려해 볼 때, “가족을 국가보다 우선하는 것”이 “가계 계승을 위해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상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50대 집단에 있어 “가족”이라는 개념안에는 가계 계승이라는 의미는 빠져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5> 50대 집단의 요인 I에 해당하는 문항들선지는 집합주의 표현을 앞으로 놓았음)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
58	아이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될 수 있는대로 오래 부모 슬하에 두고 가르쳐 세상에 나갈 유리한 고지 점령하도록 도와야)	-.59
53	자식이 할 일은 부모가 돈을 대주며 같이 있기를(원하면 될 수 있는대로 오래 부모에 의지하고 사는 것/원하더라도 일찍 부모 떠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	-.54
56	사람이란(어려서는 부모에게 나이 먹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살아야/부모 떠나 자립하고 자식에게도 의지하지 말아야)	.53
62	자식은(부모와 완전히 독립된 인간으로 다루어서는 안됨/독립된 인격의 소유자로 대우해야)	-.52
141	국회의원 임후보자 중(다른 후보보다 능력은 뒤져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람/잘 알고 지내지는 않아도 다른 후보보다 유능한 사람) 뽑아야	.49
144	세상에서 같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친척과 학교 동창 뿐/친척과 동창만은 아님)	.48
142	직장에서 다른 사람 취직시키거나 승진시킬 수 있는 위치라면 다른 사람보다 선후배를(잘 봐주는 것은 당연함/더 잘 봐주어서는 안됨)	.42
2	관리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은(가족에게는 좀 유리하게 대우하지만 다른 모든 이에게는 똑같이 하는 것/가족, 친척, 또는 친구에게도 남과 같이 대우하는 것)	-.36

<표 6> 50대 집단의 요인 II에 해당하는 문항들(선지는 집합주의 표현을 앞으로 놓았음)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
21	총과 효 중(총이 효보다 중함/효가 총보다 중함)	.66
20	국가에 대한 충성은(가족에 대한 충성보다 앞서는 것/가족에 할 일 다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	-.59
32	부부는 아이 낳을 때(가문을 잇기 위해 낳는 것/가문을 잇기 위한 것은 아님)	.51
22	사람이 가장 떠날수 있어야 할 것은(자기 나라/자기 자신과 가족)	.48
128	사람은 가족이나 가문 위해(자신을 희생시킬 줄 알아야/자신을 희생시키지 말고 개인적 인 발전을 생각해야)	.42
31	자식 두는 이유는(집안에 대 이를 사람 위해/자식 기르는 재미 보고 화목한 가정생활 맛보기 위해)	.40
151	요즘은 같은 세상에는(충효사상만큼 중요한 것 없음/충효사상은 중요치 않음)	.39
125	젊은이는 (자신보다 집안을 빛내기 위해/집안보다는 자신을 위해)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7
37	사귀는 사람이 알고보니 선배의 애인이라면(선배에게 양보/끝까지 내사람으로 만들)	-.35
3	점잖게 행동하려면(도리에 어긋난 짓하는 사람 꾸짖거나 피해자의 편 들 줄 알아야/눈에 거슬리는 행동 보아도 개인의 일이므로 간섭하지 말아야)	.34
88	부부는(일단 가정 가지면 애정 식어도 부부 관계 계속해야/애정 식으면 부부관계 계속 할 필요 없음)	.3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대 표본에서는 (1) 집합체 수용, (2) 내집단 편애, 그리고 (3) 가족중심주의가, 그리고 50대 집단에서는 (1) 부모-자식 의존관계와 (2) 가족 중심주의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집합주의-개인주의 차원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Triandis(1983)는 우선 집합주의를 내집단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하면서 그 태도의 특징을 (1) 내집단의 견해, 욕구, 및 목표의 강조 (2) 쾌락보다는 내집단 규범이나 의무 중시, (3) 내집단 신념의 중시 내지 그것에의 동조, 그리고 (4) 내집단 성원과의 편향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 중 집합체 수용은 4개 특징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특히 희생이나 의무의 중시라는 면에서 (2)에 가깝다. 내집단 편애는 (4)에 가장 가깝지만 (1)과 (3)에도 해당된다. 가족중심주의는 20대와 50대 모두에서 확인된 것인데 Triandis의 목록에서는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다. 50대 집단의 부모-자식간 의존관계 요인도 Triandis의 특징 어느것에도 잘 부합되지는 않지만 (1)과 (3)에 가장 가깝다. 이로써 적어도 Triandis의 집합주의 특징을 기준으로 한다

면 가족중심주의 요인만은 집합주의 차원과 잘 부합되지 않는 세부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가족주의는 “개인주의”와 상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 중심주의도 집합주의의 부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인은 집합주의인가

앞서 언급한대로 각 문항의 두개 선지 중 하나는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응답자들이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혹은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집합주의 태도를 나타내는 선지를 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 보았다. 이때 각 연령집단 별 요인 분석 결과 집합주의-개인주의 차원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에 묶인 문항들 중 요인 부하가 높은 대표적인 문항들의 응답을 평균하여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집합주의-개인주의 차원의 관련성이 뚜렷한 20대 집단의 요인 I (집합체 수용)과 요인 II(내집단 편애 요인), 그리고 50대 집단의 요인 I (부모-자식

관계 의존)만을 다루었다.

20대 요인 I의 문항들 : 관계에 따른 의무 수용 관련 문항들

20대 집단의 요인 I은 집합체 수용에 관한 것이었다. 이 요인에 묶인 문항들 중 요인 부하가 높은 6개 문항들에서 집합주의를 나타내는 선지를 택한 응답자들의 평균 백분율을 연령별, 성별, 그리고 거주지역/교육 수준별로 제시한 것이 표 7에 나와 있다.

이 표에서 백분율이 50을 넘으면 개인주의보다는 집합주의가 우세하다는 증거로 받아 들이기로 한다. 물론 이 기준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항에 따라 두 선지의 선택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문항의 반응을 병합했기 때문에 50% 수준이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를 가르는 절대적 분기점으로 간주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20대나 50대 집단 모두 반수 이상이 집합주의를 나타내는 선지를 택했으므로, 한국인은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는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62.5%가 집합주의 선지를 택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응답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집안을 위해야 한다고 보고 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가족이나 웃어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데에 찬성했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20대(56.2%)보다는 50대(68.8%)가 더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거주지역/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도시에 살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집합체의 수용"에서 집합주의적인 경향을 덜 보였다. 이는 현대화 압력을 강하게 받을수록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덜 보임을 나타낸다. 유일하게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집단은 20대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었다. 도시에 거주하고 또 학력이 높을수록 현대화 물결 속에서 살게되고 또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집단은 반수에 못미치는 사람들(남 46.3%; 여 44.7%)이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에서는 현대화의 영향으로 종래 있어 왔던 집합주의가 가장 많이 퇴색했다는 증거이다. 이로써 1980년경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관계에 따른 의무를 받아들이는 집합주의적 경향이 있으며, 이런 경향은 젊은 세대보다는 기성세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계에 따르는 의무를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은 현대화 압력을 많이 받는 고학력이며 대도시 거주 젊은 세대에서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20대 집단 요인 I(집합체 수용)의 해당 문항에서 집합주의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의 비율

	남			여			전체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20대	61.0*	56.0	46.3	66.3	63.0	44.7	56.2
50대	71.0	68.7	67.3	71.7	72.7	61.3	68.8
전체	66.0	62.3	56.8	69.0	67.8	53.0	62.5

* 수치는 6개 문항에서의 평균 백분율(각 칸당 n=50)임.

<표 8> 20대 집단 요인 II(내집단 편애)의 해당 문항에서 집합주의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의 비율

	남			여			전체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20대	44.4*	44.0	31.2	40.4	47.6	23.6	38.5
50대	64.0	45.6	42.4	69.2	43.2	36.4	50.1
전체	54.2	44.8	36.8	54.8	45.4	30.0	44.3

* 수치는 5개 문항에서의 평균 백분율(각 칸당 n=50)임.

20대 요인 II의 문항들 : 내집단 편애요인 관련 문항들

20대 집단의 요인 II에 묶인 문항들은 내집단 편애와 관련된 5개 문항들이었다. 이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에서 집합주의 선지를 택한 응답자들의 평균 비율이 표 8에 나와 있다. 수치의 해석은 앞에서와 같다.

요인 I의 문항들에서와는 달리 요인 II의 문항들에서는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집합주의적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들의 44.3%만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잘 보아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응답자들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38.5%만이 집합주의적 반응을 보여 적어도 이 차원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였다. 한편, 50대는 반수에 해당하는 50.1%가 집합주의 선지를 택해 어느쪽도 아니라는 것, 달리 표현하면 집합주의와 개인주의가 반반 정도 섞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대이면서 현대화 압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집단(서울/대학)은 이 문항들에서 가장 뚜렷하게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남 31.2%; 여 23.6%). 반면 현대화 압력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50대의 농촌/중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가장 강하게 나타냈다. 이 집단은 반수보다 훨씬 많은(남 64.0%; 여 69.2%) 사람들이 집합주의적인 선지를 택함으로써 유일하게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20대 집단 요인 II의 문항들의 내용은 내집단 편애에 관련된 것과 부모 자식간의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갈라져있다. 이 문항들 중에서 정실주의를 나타내는 문항을 골라내어 그 문항에서의 응답자 반응을 살펴본 결과, 내집단 편애 관련 문항들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8.8%만이 내집단 성원을 편애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내집단 편애를 거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내집단 편애를 거부하는 경향에서 세대간 그리고 남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현대화 압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 중간정도의 압력을 받는 집단(41.0%)이 압력을 가장 덜 받는 집단(36.8%)이나 가장 많이 받는 집단(38.7%)보다 약간 더 내집단 편애경향을 보여, 내집단 편애 경향에서 거꾸로 된 U자 곡선 형태(U자 형태)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순전한 내집단 편애가 집합주의의 핵심 차원과는 약간 동떨어진 차원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부모 자식간의 관계에 관련된 문항들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라는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는 전체의 38.6%에 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데 찬성함으로써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관한 80년 경의 한국인이 개인주의적인 태도(즉 자식을 독립된 인격으로 보는 태도)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전문록을 분석한 연구(車, 1980) 결과에서도 시사되는 것이다. 해방 후에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성격 중에는 “養親하는 아들이 적어졌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그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성격특성이다(車, 1980).

이렇게 부모 자식을 서로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에서 남녀간 그리고 세대간 차이가 있었다. 여자(41.7%)보다 남자(35.4%) 응답자들에서 그리고 50대(42.8%)보다 20대(34.3%) 응답자들에서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의존적으로 보는 경향이 더 작아 이들 집단에서 더 개인주의적(개별인격 인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현대화 압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중간정도로 현대화 압력을 받는 집단(42.0%)보다 나머지 두 집단(농촌/국졸, 40.6%; 서울/대학, 33.25)에서 부모와 자식을 의존적인 관계로 보는 경향이 좀더 작았다. 즉 중간 정도로 현대화 압력을 받는 집단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대해 가장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에서 본 결과를 요약하면 내집단 편애에 관한 한 한국인은 대체로 개인주의적(즉 내집단 편향 반대 입장)이다. 이 요인을 구성하는 두 주요 태도 차원인 정실주의나 부모-자식간 관계에 대한 태도에서 모두 현대화 압력이 중간 수준인 집단이 가장 덜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50대 요인 I의 문항들 : 의존관계요인 관련 문항들

50대 집단의 요인 I은 의존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6개 문항들에서 집합주의적 태도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평균 비율을 20대 집단과 50대 집단에서 알아볼 수 있다. 그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 집합주의적인 선지를 택해 전반적으로 부모-자식간의 관계 차원에서는 개인주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소수의 응답자들만이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간이 아니며 부모

〈표 9〉 50대 집단 요인 I (의존관계)의 해당 문항에서 집합주의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의 비율

	남			여			전체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20대	29.0*	33.0	27.0	27.0	37.0	23.7	29.5
50대	38.7	33.3	28.7	50.0	33.0	31.3	35.8
전체	33.8	33.2	27.8	38.5	35.0	27.5	32.6

* 수치는 6개 문항에서의 평균 백분율(각 칸당 n=50)임.

는 늙어서 자식에게 의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에 찬성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보다는 50대 응답자들에서 집합주의적인 경향이 조금 더 컸다(20대 29.5% ; 50대 35.8%). 그러므로 1980년 경 한국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아이들을 부모와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경향은 젊은 세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3개 요인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1980년 경 한국인은 모든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집합체의 수용” 내지 “관계에 따른 의무의 수용”에서는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내집단 편애”나 “부모 자식간의 의존”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내집단 편애 배척, 부모-자식간 의존관계 부인)를 보이고 있다.

“내집단 편애”나 “부모 자식간 의존”에 있어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나(me)”를 생각할 때 “가족 속에 있는 나(me in the family)”를 생각한다는 Maday와 Szalay(1976)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Maday와 Szalay(1976)는 한국과 미국의 남자 학생, 노동자, 그리고 농부들 총 150명을 대상으로 자기(self) 개념을 조사(1967년 조사)하였다. Maday와 Szalay는 이 개념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인 응답자와 한국인 응답자에게서 자기 혹은 가족과 연합되어 있는 생각들을 기술하게 한 다음, 이 반응들을 다른 한국인 판단자와 미국인 판단자로 하여금 비슷한 것끼리 묶어 범주화하도록 하였다. “나”라는 개념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사람들의 반응은 미국인들의 반응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의 반응은 주로 (1) 가족과 사랑(한국, 28% ; 미국, 9%), (2) 이상, 행복, 및 자유(한국, 14% ; 미국, 0%), 그리고 (3) 희망, 야망, 및 성공(한국, 14% ; 미국, 4%) 등으로 묶였고, 미국인들의 응답은

주로 (1) 나 혹은 개인(한국, 3% ; 미국, 35%), (2) 타인(한국, 3% ; 미국, 17%), 그리고 (3) 피로, 고독, 및 외모(한국, 3% ; 미국, 13%) 등으로 묶였다. 한국인의 가족이라는 범주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59)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51), 형제(29), 그리고 아버지(18)의 순이었다. 이 결과로 Maday와 Szalay(1976)은 개인주의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 가족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의 “자기”는 “가족 속에 있는 나(me in the family)”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내집단 편애”나 “부모 자식간의 의존”에서 한국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Maday와 Szalay(1976)의 연구가 1967년에 조사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12년 뒤에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그간에 우리사회가 급격한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생각이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인의 내집단의 대상은 무엇인가

집합주의란 내집단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되는데 만일 한국인이 집합주의적이라면 그들이 중요시하는 내집단은 어떤 집단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연령 집단별 요인 분석 결과, 20대 집단과 50대 집단 각각에서 가족 중심주의 요인이 나타났음을 보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가족이나 국가는 모두 대표적인 내집단이다. 국가와 가족 중 한국인의 내집단은 어느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과 국가를 대립시킨 3개 문항들에서 국가 우선을 나타내는 선지를 택한 응답자들의 비율을 살펴 보았다.

표 10에서 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반은 국가를 앞세우고 약 반은 가족을 우선한다. 내집단으로서 국가나

<표 10> 국가 대 가족 우선에 관련된 문항들에서 국가를 앞세우는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의 비율(%)

	남			여			전체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20대	63.5*	64.7	34.0	43.3	48.0	14.7	44.7
50대	56.0	66.0	61.3	70.7	40.0	42.7	56.1
전체	59.8	65.4	47.7	57.0	44.0	28.7	50.4

* 3개 문항에서의 평균 백분율(각 칸당 n=50). 수치가 클수록 국가를 앞세우는 경향이 큰 것임.

가족 중 어느 하나를 특별히 선호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우선 경향에서 세대간에 차이를 보였다. 20대 집단은 반수에 못 미치는 44.7%의 응답자들만이 국가(忠)가 가족(孝)에 우선한다고 보아 가족 중심 경향을 보인 반면, 50대는 반수가 넘는 56.1%의 응답자들이 국가가 가족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국가 중심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자(57.6%)가 여자(43.2%)보다 국가를 가족에 앞세우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현대화 압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도 국가 중심 경향이 달랐는데, 현대화 압력을 적게 받는 집단일수록 국가를 가족에 앞세우는 경향이 컸다(농촌/국졸, 58.4%; 서울/중졸, 54.7%; 서울/대학, 38.2%).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20대이면서 현대화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국가 우선 태도를 보인 응답자의 비율이 특히 낮았다(남 34.0%; 여 14.7%).

이렇게 기성세대일수록 그리고 현대화 압력을 적게 받는 집단일수록 국가를 가족에 앞세우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아 이들 집단에서 애국심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현대화의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국가보다는 가족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가족이라는 것이 개인주의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을 위한다는 표현이 반드시 어느 때나 집합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요즘 거론되고 있는 “가족 이기주의”라는 말이 그런대로 타당성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한 증거이다. 즉 가족을 내세우는 것은 적어도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개인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중심주의 요인도 집합주의-개인주의 차원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한가지 언급할 것은 이 요인에서는 가족과 국가가 대립되는데 가족이나 국가는 모두 중요한 내집단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주의 요인은

Triandis의 정의에는 맞지 않는 한국 특유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학교 동창이 한국인의 집합주의의 내집단이라는 간접적 증거가 있다. 학교 동창에 관해 언급한 문항(#144)이 “친척과 학교 동창”을 묶어서 다루었기 때문에 동창과 친척을 구별할 길이 없다. 그러나 동창이 내집단으로 작용한다는 심증을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문항(#37)은 선택이 “선배”에게 양보 여부를 묻는 것인데 이 문항이 50대 표본에서 가족-국가 요인의 일부로 등장하고 선배에의 양보가 국가 선호와 맞물린 점에 비추어 학교 선배도 내집단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6 참조). 물론 선배가 반드시 학교 선배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애매한 점은 남는다.

요인점수의 분석

여기에서는 요인점수를 구해 분류변인의 효과를 알아 보았다. 분류변인에 따라 규정된 표본들이 각각의 요인 점수에서 서로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보았다. 차이 검증은 주로 변량분석을 이용했다. 분석은 연령집단별로 실시했다.

20대 집단

20대 집단의 요인 I (집합체의 수용) 점수의 평균이

<표 11> 20개 집단의 요인 I 점수의 평균

성별	거 주/학 력			전체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남	-.32	.02	.53	.08
여	-.47	-.39	.63	-.08
전체	-.40	-.19	.58	.00

* 각 칸당 n=50

성별 및 거주지역/교육수준별로 표 11에 나와 있다. 요인 I에서는 性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거주지역/교육수준 주효과는 크게 유의미했다, $F=32.39$, $df=2/294$, $p<.001$. 현대화 압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요인 점수가 높았다. 요인 점수의 경우 점수가 높은 것이 집합주의적인 경향이 높음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높음을 나타내는지 직접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요인점수는 일종의 환척이기 때문이다. 의미있는 해석을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어떤 선택지를 택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해당하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이 어떤 선지를 택했는지는 표 7부터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7(집합체의 수용 요인)에 나타나 있는 평균 백분율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고 대도시에 살수록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적게 보이고 있어 현대화 압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집합체 수용 태도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차이가 없이 오직 현대화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로도 이 요인이 집합주의를 대표하는 차원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2에는 요인 II (내집단 편애) 점수의 평균이 성별 및 거주지역/교육수준별로 제시되어 있다. 요인 II에서도 性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거주지역/교육수준 주효과는 유의미했다, $F=12.79$, $df=2/294$, $p<.001$. 표 12에서 20대 응답자들은 남녀 모두에 있어서 2차 곡선적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내집단 편애)의 평균 백분율을 참조해 볼 때, 중간 정도로 현대화의 압력을 받는 집단이 내집단 성원에 대해 가장 보호적(편애적)이고, 현대화의 압력을 가장 덜 받거나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내집단 성원에 대해 덜 보호적임을 알 수 있다. (제 III요인 점수 비교는 생략했다.)

50대 집단

50대 집단의 요인 I (의존 관계) 점수의 성별 및 교

<표 12> 20대 집단의 요인 II 점수의 평균

성별	거주/학력			전체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남	.19	.26	-.20	.08
여	-.13	.39	-.51	-.08
전체	.03	.33	-.36	.00

*각 칸당 n=50

<표 13> 50대 집단의 요인 I 점수의 평균

성별	거주/학력			전체
	농촌/국졸	서울/중졸	서울/대학	
남	-.44	.45	.55	.19
여	-.80	-.07	.27	-.19
전체	-.61	.19	.41	.00

* 각 칸당 n=50

육수준/주거지역별 평균이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점수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성별 주효과와 교육수준/주거지역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했다, 각각, $F=14.18$, 37.04 , $df=2/294$, $p<.001$. 남자가 여자보다 요인 점수가 높았으며, 현대화 압력을 많이 받는 집단일수록 요인 점수가 높았다. 표 9의 평균 백분율 자료를 참조해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의존적인 관계에 대해 덜 수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속적인 관계를 덜 수용하는 경향은 현대화 압력을 많이 받아서 현대화된 집단일수록 더 강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각 세대별 요인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집합주의적인 태도나 개인주의적인 태도에는 거주지역/교육수준 변인(즉 현대화 압력 변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화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대도시(서울)에 사는 고학력자들은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화 압력을 덜 받는 사람들(농촌에 사는 저학력자)은 비교적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성별 변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집단에서는 성별 변인의 주효과나 그와 관련된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50대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성별 변인의 주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50대 집단의 요인이 “의존관계”라는 특수한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즉 이 요인에서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쪽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의존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므로 남성보다 의존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여성이 보다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집합주의적인 태도와 남성적인 성격 특성이 상관되어 있을 때에는 이와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성별 변인이 집합주의 혹은 개인주의 태도를 갖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반면 현대화 압력을 받는 정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즉 현대화 압력을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요인의 내용에 관계없이 집합주의적인 태도보다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이 연구 결과는 전통적 한국 사회는 집합주의적 이었기 때문에 현대화 압력으로 집합주의가 개인주의로 바뀌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한국인들의 (1) 집합주의의 요인적 차원이 무엇인지, (2) 각 요인에서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혹은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3) 한국인의 내집단의 대상이 가족인지 국가인지, 그리고 (4) 인구학적 변인이 집합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집합주의-개인주의와 관련된 요인으로 20대 집단에서는 3개(집합체 수용, 내집단 편애, 가족 중심주의)의 요인이 나타났고 50대 집단에서는 2개의 요인(부모-자식 관계 의존, 가족중심주의)이 나타났고 50대 집단에서 집합체 수용이라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특이한데, 이는 50대 집단의 응답자들이 이와 관련된 문항들에서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로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요인분석에서 어떤 요인이 한 요인으로 등장하려면 그와 관련된 문항에서 피험자들간에 변산(개인차)이 있어야 한다. 관계에 따른 의무를 수용하느냐의 문제, 즉 집합체 수용에 있어서 50대 집단이 대부분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즉 집합체 수용이 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에 따른 의무의 수용이라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집합주의-개인주의 차원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될 수 있다. 현대화가 더 일층 진척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시점을 생각할 수 있고(마치 80년 무렵 50대가 거의 모두 집합체 수용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태도가 어느 쪽으로든지 규범화되면 그 태도는 요인으로서 등장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가 일시적 요인 가설(transient factor hypothesis)라고 발표한 바 있다(Cha, 1990).

또한가지 본 연구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1980년

경 한국인들이 모든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들(예: Hofstede, 1980: The Chinese Cultural Connection, 1987)에서는 세계 여러나라들 중에서 한국을 전반적으로 집합주의적인 나라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모든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어떤 측면("집합체 수용" 내지 "관계에 따른 의무 수용" 요인)에서는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다른 측면("내집단 편애" 요인과 "의존관계" 요인)에서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가 변천함에 따라 어떤 측면에서는 집합주의적인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무너져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변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하겠다. Triandis 등(1988)도 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그 사회가 보이는 집합주의 경향이 다름을 지적한 바 있다. Triandis 등에 따르면, 사회의 복잡성과 집합주의-개인주의는 U자 형태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아주 극소수의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타인들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극도로 단순한 사회(예: 피그미족 사회)에서는 원시-개인주의(proto-individualism)가 나타난다. 이보다 좀더 복잡한 사회(예: 중국)에서는 집합주의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들은 동심원으로 조직되어 있는(예: 핵가족, 대가족, 가문, 시, 주) 몇개의 매우 중요한 내집단들에 관련을 맺고 산다.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와 같이 극도로 복잡한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현대화·산업화를 이룩해가면서 종래의 집합주의적인 경향에서 이제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변화하는 U자 곡선의 후반부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참 고 문 헌

- 車載浩(1980). 한국인의 의식과 성격. 서울: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 한국문화의 연속과 변화(pp.1-58). 서울: 편자.
- Cha, J.H.(1990).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dividualism

- Collectivism, July 9-13, 1990, Seoul, Korea.
- 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 (1987). Chinese values and the search for culture-free dimension of cult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2), 143-164.
- Hofstede, G. (1980). *Cultures and organizations*. London: McGraw-Hill.
- Maday, B.C., & Szalay, L.B. (1976). Psychological correlates of family soci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 T. Williams (Ed.), *Psychological anthropology*. Hague: Mouton.
- Triandis, H.C. (1983). *Alloentric vs. idiocentric social behaviors: A major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Hispanics and mainstream* (Tech. Rep. ONR-16). Champaign, I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Illinois.
- Triandis, H.C., Bontempo, R., Villareal, M.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 323-338.

Collectivism in Modern Korean Society

Jae-Ho Cha and Jee-won Ch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ponses of an incidental sample of Korean married adults ($n=600$) on the 32 items related to the collectivism-individualism continuum, which were formed part of a questionnaire originally administered in 1979 for a study on "the personality and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Cha, 1980), were analyzed. Factor analysis of the 32 items in each age group (20's, 50's or older) separately produced 3 orthogonal factors (acceptance of collective obligation, in-group favoritism, and family-centeredness). For the older group, 2 factors (in-group favoritism, family-centeredness) emerged.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s in 1979 were individualistic in terms of rejecting in-group favoritism and dependenc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hile they were collectivistic in terms of accepting collective obligations. The subgroups exposed to the greatest modernization pressure (living in Seoul and/or college educated) turned out to be least collectivistic, especially in acceptance of collective obligations.